

선교사 진출후 의료·교육시설 잇따라 건립 '신도시' 변모



1925년 일제는 대대로 이어져온 광주의 광주천변 큰 장과 작은 장을 폐쇄하고 사정시장을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순천시민의 터전이었던 순천읍성 내 시장을 없애는 대신 읍성 북쪽에 근대식 시장인 보통시장을 조성했다. 1927년 준공된 2388평 면적의 이 시장은 그러나 상인들의 반발로 운영되지 못하다가 1929년에야 문을 열었다.



동천과 옥천이 흐르는 순천은 비옥한 토지 덕분에 전남에서 제주군을 제외한 3번째로 큰 군이었다. 일제는 교통의 요지로 성장하는 순천을 전남 동부의 '수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사진은 1910년대 순천읍내와 삼산.

국가기록원과 함께하는 남도근대화탐사 (33)



13. 순천의 성장과 1910·1920년대의 변화

순천은 1920년대까지 인구 측면에서 제주(일제강점기에는 제주군으로 전남도 소속), 무안, 나주에 이어 4번째 도시였다. 제주를 제외하면 사실상 3번째로, 여수와 광양을 아우르는 전남 동부권의 '수도'라고 불렸다.

개항장인 목포와 내륙 거점인 광주에 비해 그 속도는 더뎠지만 한일강제병합 이후 순천도 일본인의 진출, 일본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근대화·도시화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개항과 동시에 목포와 광주, 나주에는 일본 본토에서 '식민지에서의 기회'를 노린 상인이나 무직자 등이 몰려들었지만 순천에는 균형 직원, 경찰(1906년 장흥경찰서 순천분과소)이나 법관(1907년 순천재판소) 등과 그 가족이 주를 이뤘다. 이는 순천에 교육·의료시설들이 집적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우선 순천의 1910년대를 들여다보자. 일제의 입장에서 순천은 목포와 광주보다는 그 중요도가 떨어진 것은 분명했다. 다만 항구를 갖고 있는 여수와 가까운 순천은 일본 본토와의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남 서부권(광주~나주~목포)에 한정돼 있던 수탈 및 의병 진압 노선을 동부권(광주~순천~여수)까지 아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순천은 철저하게 이러한 관점에서 도로와 철도가 놓였다.

1911년 근대건축물 20동 조성...읍성면적 92%

1914년 3개 도로노선 지나 교통 중심지로 부각

1920년 금융업·상업 호황...인구, 전남 세번째

병원 2곳·학교 15곳 운영 의료·교육도시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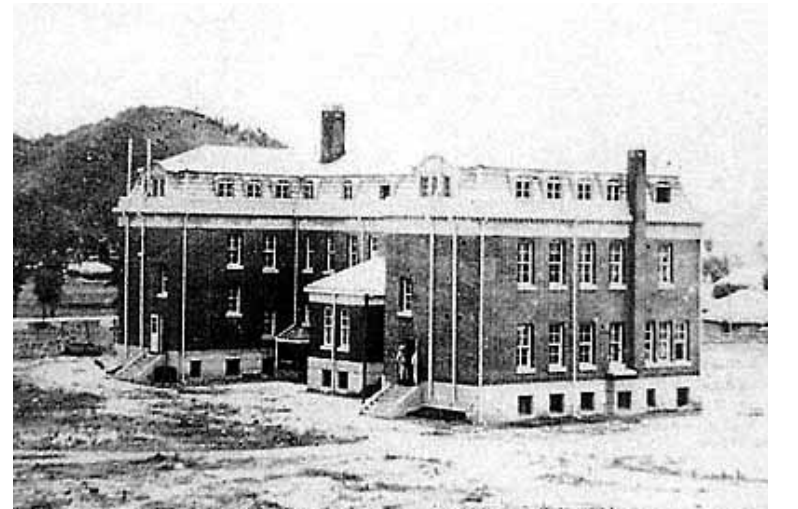
광주읍성이 목포에서 경성으로 가는 1등 도로의 개설과 함께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됐던 것과 같이 순천읍성도 광주에서 여수로 가는 2등 도로가 조성되면서 서서히 무너져갔다. 최초의 근대적 도로는 순천~광주, 그리고 순천~여수를 잇는 읍성 내 남북도로, 즉 지금의 중앙로였던 셈이다.

그와 동시에 일제가 지방을 장악하기 위한 근대적 시설들, 즉 우편국, 경찰서, 헌병관사, 재판소, 소학교 등이 1910년을 전후로 들어서고 있다. 행정기관이었던 순천군청과 순천면사무소에 일본인 관료들이 진출한 것도 이 시기다. 이들 시설들은 읍성 내 조선시대와 대한제국시대를 거쳐 500여 년 동안 존속했던 객사 등 건물들을 차지하고 있다가 그 뒤 건물을 신축해 읍성 내외로 이전하기도 했다.

한일강제병합이라는 강한 자극을 받은 도시 순천은 곧바로 1910년대 초반 또 다른 커다란 외국 문물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읍성 내부, 지금의 남내동, 중앙동, 영동, 행동 등과 인접한 옥천동, 금곡동, 장전면 등에 머물렀던 시가지는 1911년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들이 읍성 북서쪽에 자신들의 공간을 조성하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1894년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들은 호남지역 답사를 하면서 순천에 들렀고 이곳에 선교부 설치를 결정했으며, 그 후 12년이 지난 1909년 순천에 첫 교회를 설립하고 1910년에는 선교 기지 개설을 논의했다.

1911년 건축비로 1만3000달러라는 거금을 마련한 그들은 1929년까지 난봉산 줄기에 선교사 사택, 병원, 교육시설 등 무려 20여 동의 건물을 지었다. 읍성 내 면적의 92%에 달하는, 사실상 신도시 수준이었다. 여기에 1915년 매산학교, 1916년 매산남학교 등이 들어섰고, 이 사립학교는 1916년 교명을 바꾸라는 일제의 압박에 자진 폐교했다가 1921년 다시 개교하는 굴곡을 겪기도 했다. 유일하게 전남 동부권에서 4년제 교육과정인 고등학교가 있던 곳이기도 했다. 1916년에는 선교사 알렉산더의 이름을 빌린 알렉산더병원이 개업하기도 했다.

1914년 황금연예관(후일 국도극장) 앞을 지나는 신작로가 개설되고, 순천은 이 시기 전주~여수 간, 마산~우수영 간, 광주~순천 간 등 2등 도로 3개



순천의료원의 전신인 순천 자혜의원은 1921년 10월 준공됐다. 기존 알렉산더병원과 함께 후일 철도진료소 등 종합병원만 3곳이나 자리하면서 순천은 명실상부한 의료도시가 됐다.

노선이 지나는 교통의 중심지로 부각됐다. 이들 도로 가운데 광주~순천(전주~순천) 간 도로는 1912년 착공해 1914년 4월 완공되는데, 이 도로공사에 동원된 인부는 다른 어떤 일제의 포로가 된 동학혁명군이었다. 1907년 7월15일 순천·낙안·홍양·여수·광양 등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순천지방금융조합이 설립됐고, 1910년 순천보다 더 신속하게 성장을 거듭했던 여수지방금융조합이 분리 설립됐다.

인구 면에서 보면 1915년 순천면의 인구는 5557명으로, 한국인이 4953명, 일본인이 604명을 차지했다. 1910년 전체 인구는 4554명이었고, 한국인이 4753명, 일본인이 199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년 만에 일본인 수는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었다.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순천에는 금융업과 상업이 크게 일어난다. 호남은행 순천지점이 1922년 6월 총독부 인가를 받아 8월 개업했는데, 개업한 지 한 달 만에 예금입금 19만4532원, 예금출금 8만7921원 등의 실적을 올렸다. 순천도시금융도 같은 해 10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11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데, 가입조합원이 117명이었다. 이외에도 자하산농주식회사, 순천직물주식회사, 순천자동차주식회사 등의 회사가 운영에 들어간 것도 1920년대다. 또 순천전기회사가 불입금 5만5000원과 차입금 2만원으로 순천면 동외리에 설립돼 1925년 8월1일 첫 전등을 점화했다.

순천의료원의 전신인 순천 자혜의원이 1921년 10월 준공되면서 알렉산더병원과 함께 종합병원으로 자리했고, 1929년 발간된 '순천 군세일관'에 따르면 순천공립농업초등학교, 순천공립소학교, 순천공립보통학교 등 13곳의 초·중·고등학교와 순천매산학교, 순천매산여학교 등이 운영되면서 순천은 명실상부한 의료 및 교육도시가 됐다.

1920년대 말에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잠재돼 있던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1925년 일본인 인구는 785명으로, 한국인(8154명)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행정·사법·경찰·경제 등 지역사회 전반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근대적 도로를 놓는 등 차별정책을 계속했고, 이로 인한 마찰은 순천보통시장(지금의 북부시장) 개설과 철도역 토지수용 등을 놓고 본격화됐다.

일제가 대대로 내려오던 광주의 광주천변 큰 장과 작은 장을 폐쇄하고 사정시장을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순천시민의 터전이었던 순천읍성 내 시장을 없애는 대신 1925년부터 읍성 북쪽에 근대식 시장인 보통시장을 조성하고 나섰다. 2388평 면적의 시장 내 점포, 음식점 분양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이었다.

이 시장은 1927년 준공되지만 시장 상인들의 반발로 운영되지 못하다가 1929년에야 비로소 시장 기능을 하고 있다.

또 1929년 1월17일자 동아일보는 일본의 민간기업 남조선철도회사가 광주~여수 노선공사에 나서면서 지역 유지들에게 순천역 부지를 싼 값 또는 무상기부를 받으려다 반발을 사고 있다는 기사를 전하고 있다. 물론 일본인 유지들은 찬성하고 있었고, 반발하는 한국인 유지에게 남조선철도주식회사 측은 토지수용을 하겠다며 위협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편 시가지였던 순천면을 포함한 순천군의 1929년 인구는 10만9093명(2만1803호)였다. 이 가운데 일본인은 1188명(132호)으로, 대부분 순천면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윤희철 국가기록원 직원

▲도움말 주신 분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봉수 동강대 건축과 교수
▲이 기사는 국가기록원·광주시·전라남도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3만원으로 떠나는 제주도여행

매일 광주에서 출발하는 서틀버스로 목포항까지 편안하게!
국내최대 씨스타크루즈호 타고 제주까지 안전하게~3만원으로 떠나세요.

광주↔목포 서틀버스 + 씨스타크루즈호

광주출발 06:40 광천터미널 맞은편
목포출발 21:30 여객터미널 주차장

*1인 편도요금이며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광주출도착
제주도 2박3일 **139,000원**

1일차 도두봉 트래킹, 용두암 용연, 노을언덕 무인카페

2일차 오설록, 생각하는 정원, 서커스월드, (현지직물) 서귀포유람선, 롯데호텔정원, 올레길

3일차 선녀와나무꾼, (현지직물) 몽골리안마상쇼 or 매직쇼, 조랑말 승마체험, 제주허브동산

포함사항: 광주-목포 왕복 서틀버스, 왕복선박료, TAX, 차량, 일반 호텔(다인실), 일일표내 입장료, 식사 (중식2회, 조식2회)
불포함사항: 가이드 팁, 개인비용, 현지직물관광, 자유석식

씨월드 고속훼리(주) 우수대리점. 제주배닷컴 www.jeube.com **1644-2261**